

# 자랑스런 우리기술에 붙여진 이름

서 기 선  
전자신문 경제과학부 기자

「장영실상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직원들은 올해로 30회째 맞는 「과학의 날(4월 21일)」행사준비 때문에 한창 바빠던 지난 4월초, 한 회원사 간부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듣고 환호성을 올렸다.

## 1천2백여명의 연구원 포상

장영실상은 이 협회가 연구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매주 1개씩 우수한 국산신기술 제품을 선정, 시상하고 있는 제도, 올해로 7년째 접어든 장영실상은 지금까지 총 3백30여개 신기술 제품 및 1천2백여명의 연구원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기술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몇 안되는 賞종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산기협의 직원이라면 장영실상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의 의미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협회가 아무도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90년대초부터 우수한 국산신기술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서 장영실상은 「뛰어난 과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한 사람에게 주는, 우리나라 산업기술분야 최고의 상」이라고 소개됐다.

김승재 산기협 이사는 장영실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지난 90년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제장대환 매일경제 사장을 만나 젊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상의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한다.

김승재 이사는 『91년 첫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장영실상이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 젊은 연구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됐을 정도로 이제 그 뿌리를 단단하게 내렸다』고 평가한다.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로 『훈장 등 각종 상이 대부분 평생업적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젊은 연구원들은 상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반해 장영실賞은 단일 연구 프로젝트

트를 선정 대상으로 할 뿐더러 매주 한 팀을 선정하기 때문에 수상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산기협은 또 장영실상과 별도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제품임을 공인해주는 국산 신기술인증(KT마크·Korean Technology) 제도를 장영실상에 비해 2년 늦은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KT마크는 그러나 상·하반기에 한번씩 분야별로 총 60~70개 신기술 제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시상제품의 숫자가 최근 5백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이미 장영실상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산기협은 KT마크를 획득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공동관심사 등을 토론할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안에 「KT클럽」을 출범시킬 계획이다.(상자기사 참조)

**신기술마크기업 한데 뭉친다**

가칭 KT클럽...상반기내 협의회 구성  
3백개社 상회...상호협력 방안 등 논의

국내 대표적인 신기술 인증제도인 국산신기술마크(KT)를 수상한 기업들로 구성된 가칭 「신기술기업 협의회(KT클럽)」가 상반기중 결성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지난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KT마크를 수상한 기업의 숫자가 최근 3백개사를 넘어섬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KT클럽이라는 협의회를 결성. 기술개발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산기협은 이를 위해 오는 6월께 창립 총회를 가지며 두달에 한번씩 조찬회를 개최, 기술개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특별행사로 해외 산업시찰, 박람회 참관 등을 추진기로 했다.

산기협은 특히 KT클럽을 현재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운영하고 있는 「프레지던트 클럽」과 같은 중소·벤처기업계 사장들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T마크 수상업체 숫자는 96년말 현재 총 2백62개사로 중소기업이 1백86개사, 대기업이 76개사이며 분야별로는 기계분야(66개사), 화학·생물(59개), 전자전기(54개), 정보통신(39

개), 소재(28개), 환경(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KT클럽의 회원 자격은 KT마크를 획득한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에 한하며 KT마크 심사위원은 명예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비는 입회비 30만원, 연회비 20만원이며 명예회원은 무료.  
1997년 5월 3일 전자신문

국내에는 이 밖에도 최근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가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EM·NT(New Technolgy) 2개의 상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통신부도 올해초 IT(Information Technolgy)상을 제정, 이 대열에 가세했다.

여기에 환경부와 통상산업부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환경·GD(Good Design) 마크까지 합치면 바야흐로 「상의 홍수시대」가 열린 듯한 느낌마저 든다.

앞으로 세계시장을 휩쓸만한 국산 신기술 제품의 개발소식이 이들을 선정, 시상하는 상이 늘어나는 것 만큼이라도 자주 들려오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영실상 개요**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후원 : 과학기술처

신청대상 :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중에서 신청 접수할 때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상용화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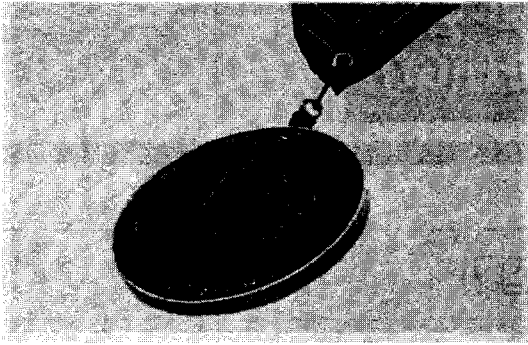
신청자격 :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의장, 정부,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언론기관 및 과학기술관련 타상 시상권자, 과학기술관련 단체 및 경제 단체의 장

접수기간 : 수시접수

심사절차 : 산·학·연·관의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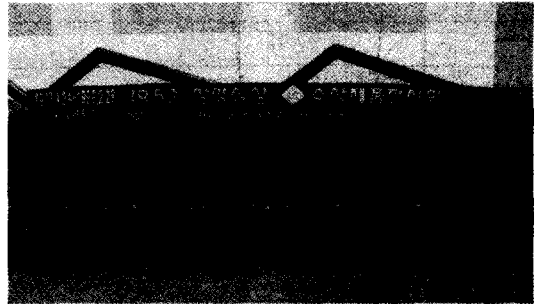
심사분야 : 전기전자, 컴퓨터·정보통신, 기계, 화학·고분자·섬유, 소재

금융지원 내용 : 기술개발자금 우선지원(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메달 사진

지원내용 : 인정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 등에 KT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킴  
 기술개발자금 우선지원(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전화문의 : 508-8871(교환 110-117)



사진설명

「서울과학관에서 장영실상·KT마크 수상제품을 모두 만날수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서울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영실상·KT마크 전시회 테이프 커팅 장면. 이 전시회는 97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국산신기술인정제도**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후원 : 과학기술처

신청대상 : 자체기술로 개발된 제품

신청자격 :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장, 기술을 개발, 기업에 이전한 경우 생산예정 기업의 장

접수기간 : 수시접수

심사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화학·생물, 소재, 환경·에너지·건축

심사기준 : 기존제품에 비해 기술적으로 독창성·자립도·파급효과 등이 우수할 것  
 가격경쟁력, 수입대체효과 등 경제적 전망이 있을 것

**저 자 소 개**

**서 기 선**

1959年 2月 9日生

1983年 2月 세종대학교 경제학과(학사)

1985年 2月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1988年~1990年 Business Korea(월간) 기자

1991年~1993年 정보기술(월간)기자

1994年~현재 전자신문사 경제과학부 기자

주관심 분야 : 전자·정보통신, 과학사